

제 1 교시

국어 영역

780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讀書)는 책을 읽는 행위를, 독자(讀者)는 책을 읽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읽는’의 의미를 내포하는 독(讀)은 행위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 표현이다. 즉, 독서는 읽기의 과정 전체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읽기의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읽기 전, 중, 후 단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읽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읽기 전 단계는 독자가 독서의 목적을 결정하고, 목적과 관련된 글을 탐색하며, 읽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읽기 단서를 통한 내용 예측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가 있다. 전자는 표지, 제목, 삽화, 목차 등의 단서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다. 이때 글의 내용이 독자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독서의 재미가 더해질 수 있다. 후자는 읽거나 학습해야 할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다.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독서의 흥미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당 전략은 독서 효율을 높인다.

읽기 중 단계는 독자가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을 읽고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거치는 단계이다. 이때 독자는 글의 내용을 보고 다양한 독해 방법을 결정한다. 가령, 읽는 속도나 읽는 범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읽기 중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질문하기’가 대표적이다. 독서 과정 중 질문은 독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발적인 점검 과정이다.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해 꼼꼼하게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독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읽기 후 단계는 글을 읽는 행위를 마친 후 생각을 정리하고, 읽었던 내용을 활용하는 단계이다. 읽기 후 전략에는 크게 ‘정리하기’, ‘비판하기’, ‘감상하기’가 있다. 정리하기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읽기 목적에 따라서 수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주로 사실적 독해가 필요한 경우 자주 쓰이는 전략이다. 비판하기는 필자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상하기는 글을 읽고 깨달은 점이나 감동적인 점을 회상하여 내면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렇듯 독서는 역동적인 사고 과정을 가진 행위이며,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 표현이다.
- ② 독서는 역동적인 사고 과정을 가진 지적 활동이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 ④ 사실적 독해는 글의 내용을 수용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 ⑤ 독서 목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새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

2. **다양한 읽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전 단계에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 ② 읽기 전 단계에서 삽화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③ 읽기 중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다.
- ④ 읽기 후 단계에서 글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읽기 목적을 수정할 수 있다.
- ⑤ 읽기 후 단계에서 글에서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내면화하기 위해 글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3. <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윗글과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며칠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하루도 안 걸려서 집 앞으로 배송됐었다. 그래서 택배는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하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서 도서관에 갔다. 거기서 『택배 네트워크』라는 책을 찾았다. ①책의 표지는 화물차 그림에 로켓이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이 표지를 보고 신속 배송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뒤에 목차를 훑어봤는데 그중에서 ‘지리적 요인이 택배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었다. ②이를 보고 지리 시간에 ‘지리적 요인’을 배웠던 기억이 떠올라 흥미를 느끼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책에서 신속 배송의 원리는 ‘택배 네트워크’에서 기인하며, 그 유형에는 P2P 유형과 H&S 유형, 하이브리드 유형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③책은 내가 몰랐던 생소한 내용들이 있었고, 흥미로워서 계속 읽어 내려갔다. ④책을 읽으면서, P2P 유형과 H&S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했고, 이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천천히 읽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많은 여운이 남았다. ⑤내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택배 서비스가 수많은 택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집대성된 결과였던 것이었다. 앞으로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 ① ①: 학생은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유추했다는 점에서 ‘읽기 단서를 통한 내용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했군.
- ② ②: 학생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배경지식이 독서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모습이군.
- ③ ③: 학생의 예측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독서의 재미가 더해진 모습이군.
- ④ ④: 학생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읽는 속도를 조절한 모습이군.
- ⑤ ⑤: 학생은 글을 읽고 깨달은 점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읽기 후 단계에서 ‘감상하기’ 전략이 사용됐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논증은 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제들의 집합을 일컫는다. 논증에서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즉 진리치를 가진 문장인 명제는 전제와 결론으로 나뉜다. 하나의 논증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전제를 갖는다. 이때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행하는 추론 과정을 거치는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연역 논증이 바람직한 논증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해당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타당성은 논증의 추론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전제나 결론의 진리치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의 형식적 구조를 통해 밝혀진다. 즉, 타당성은 논증의 명제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관한 여부와 상관없이 논증의 구조에 따른 연결적 측면을 검토하기에 형식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결론이 참이 되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어떤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논증을 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당한 연역 논증은 모든 명제가 항상 참인 경우만을 갖지 않는다. 가령, ‘모든 고래는 파충류이다. 모든 파충류는 날개가 있다. 고로, 모든 고래는 날개가 있다.’라는 연역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모두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당한 논증이 된다. 즉, ㉠논증의 명제 중 거짓이 있더라도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논리학은 논증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건전한 연역 논증은 논증이 타당하면서 명제가 모두 참인 논증을 말한다. 어떤 논증이 건전함을 파악하기 위해선, 형식 논리적 측면을 ㉡넙어서 해당 명제의 사실적 문제 또는 과학적 진실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령, ‘모든 조류는 날개가 있다. 닭은 조류이다. 고로, 닭은 날개가 있다.’라는 논증이 건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선, 각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연역 논증의 건전성보다 타당성을 우선시하므로 형식 논리학이라고도 불린다.

(나)

오류란 논증을 구성하는 데에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리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류를 범한 논증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일견 타당해 보이거나, 실제로 타당하면서도 그릇된 논증이다. 이때 논증의 오류가 내용적 측면에서 비롯되면 비형식적 오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되면 형식적 오류라고 한다.

비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할 정당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논증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자의 속성에 주목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전제나 결론을 의도적으로 확대 및 축소함에 따라, 언어의 중의적 속성 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논증의 추론 과정이 부당하여 발생한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어떤 논증이 ‘P이면 Q이다.’의 전제로 나타날 때 뒤이어 나타나는 전제가 ‘P이다.’ 혹은 ‘Q가 아니다.’라면, 그 논증의 결론은 반드시 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P가 아니다’ 혹은 ‘Q이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전자의 경우를 전건부정의 오류, 후자의 경우를 후건긍정의 오류라고 부른다. 가령,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지 않았다. 고로, 땅이 젖지 않았다.’라는 논증은 비 외의 이유로 땅이 젖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논증인 것이다.

한편, ‘P이거나 Q이다.’와 ‘P이다.’를 전제로 갖는 논증이 ‘고로 Q가 아니다.’의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는 선언지긍정의 오류에 해당된다. 가령, ‘그는 사과를 샀거나 배를 샀다. 그는 사과를 샀다. 고로 배를 사지 않았다.’는 논증은 그가 사과와 배 모두 샀을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이 항상 참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못하여 부당한 것이다. 한편, ‘A는 남자거나 여자다. A는 남자다. 고로, A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논증은 타당한 논증으로 분류된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이 같은 경우는 ‘A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 없다’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다음으로 ‘A는 C이다. B는 C이다. 고로, A는 B이다.’ 형태의 오류가 있다. 이를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라고 부른다. 이는 논증에서 각 전제를 연결하는 공통된 요소인 매개념이 외연을 주연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때 외연은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전 범위를 가리키는데, 어떤 명제가 특정 개념의 외연 전체를 포괄하여 진술할 때 이를 주연한다고 말한다. 해당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적어도 매개념이 외연을 한 번이라도 주연해야만 한다.

논증에서 공통된 매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도 있다. 가령, ‘일본도는 도검이다. 일본도도 부엌칼도 모두 칼이다. 따라서 부엌칼은 도검이다.’ 같은 논증은 일본도, 도검, 칼, 부엌칼로 네 개의 개념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 각 개념을 주연할 공통된 매개념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이러한 논증은 네 개의 개념으로부터 오류가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사개명사의 오류라고 한다.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하나의 연역 논증에선 최소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갖는다.
- ② (가): 논리학은 연역 논증의 타당성을 건전성보다 중시하기에 형식 논리학이라고도 불린다.
- ③ (나):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건전하지 않은 논증은 비형식적 오류를 범한 논증이다.
- ④ (나): 형식적 오류를 범한 논증은 외형적으로 논증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논증이다.
- ⑤ (나):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가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5. ㉠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증의 결론은 전제와 상관없이 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의 건전성을 밝혀냄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논증에서 명제의 진리치는 과학적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논증의 타당성은 명제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논증의 형식적 측면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 ⑤ 부당한 논증은 결론이 거짓인 경우에만 나타나므로, 전제만 거짓인 논증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A]를 바탕으로 다음의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줄이자는 김○○의 주장은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방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보안이 위험해집니다. ㉡ 즉, 김○○은 한국을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 군복무 기간을 줄이자는 말은 군에서 근무하는 병사인 기간병 수를 줄이자는 말입니다. ㉣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이 위험해지고, 이는 곧 국방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 그리고 애초에, 김○○은 병역 면제지 않습니까? 고로 해당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는 주장입니다.

- ① ㉠의 결론은 ㉣에서 전제로, ㉣에서 결론은 ㉠에서 전제로 나타나므로, 해당 주장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겠군.
- ② ㉡는 김○○이 주장한 결론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발생한 오류군.
- ③ ㉢는 ‘군복무 기간’과 ‘기간병’이라는 다른 뜻을 가진 말을 동일시하여 나타난 언어적 중의적 속성에 따른 오류군.
- ④ ㉤는 논증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자의 속성에 주목하여 나타난 오류군.
- ⑤ ㉠~㉤는 모두 오류가 논증의 구조에서 비롯되어,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형식적 오류군.

7.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와 [사개명사의 오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 개의 명제로 구성된 논증이다.
- ② 각 전제를 연결하는 매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논증의 추론 과정이 부당하여 나타난 논증이다.
- ④ 전제를 참으로 가정해도 항상 참인 결론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⑤ 외연을 주연할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논증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느 마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형사는 용의자로 A와 B를 지목했다. 형사는 살인 현장에 A가 그곳에 있었고, B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형사는 범인이라면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A가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뒤에 형사는 A가 범인이라면 B는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B를 풀어주었다. 후에 밝혀진 결과로 범인은 A와 B 모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① 형사는 A를 범인으로 추론하는 과정 중에 전건부정의 오류를 범했다.
- ② 형사가 A를 범인으로 추론한 과정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므로 건전한 논증에 해당한다.
- ③ 형사가 A를 범인으로 추론했을 때, ‘현장에 있었으면 범인이다.’라는 생각을 대신 했더라면, A가 범인임을 도출하는 과정은 타당하다.
- ④ 형사가 B를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범인은 A거나 B이다.’라는 암묵적인 전제에서 A와 B가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⑤ 만약 재판 결과로 B는 범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면 형사는 타당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논증을 한 것이다.

9.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이번 시험 난이도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 ② 할아버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섰다.
- ③ 해가 다 질 무렵에야 마을 앞 능선을 겨우 넘어섰다.
- ④ 뱀뱀에게 쫓기던 그녀는 겨우 죽을 고비를 넘어섰다.
- ⑤ 끈질긴 설득 끝에 아버지도 역시 우리 편으로 넘어섰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능형 에이전트란 주어진 환경을 지각하고 성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하도록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에이전트를 말한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기존의 에이전트와 달리 인공지능 기법인 강화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강화 학습이란 학습의 주체인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입출력 장치인 감지기와 작동기를 갖추며, 내부적으로는 수행 요소, 비평가, 학습 요소, 문제 생성기로 구성된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감지기를 통해 주어진 환경을 지각한다. 이때 지각한 모든 정보는 지각열 형태로 저장되어 수행 요소로 전달된다. 수행 요소는 지각열을 내부 지식으로 해석한 뒤에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작동기로 전달함으로써 에이전트의 행동이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비평자는 감지기로부터 획득한 지각열을 고정된 성과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학습 요소에 전달한다. 이에 학습 요소는 평가 내용에 따라서 수행 요소의 내부 지식을 수정한다. 한편, 문제 생성기는 기준에 시행하지 않았던 동작을 수행 요소에 제시함으로써 지능형 에이전트의 강화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능형 에이전트의 수행 요소는 ‘적절한 행동’을 어떤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일까? 이는 리처드 벨만이 고안한 마코프 의사 결정 모형(MDP)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MDP는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순차적 의사 결정 모형으로, 지능형 에이전트의 행동을 실현한다. 이러한 MDP의 작동 원리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을 통해 설명된다.

MDP는 감지기가 지각한 환경인 상태를 파악한 뒤에 행동을 결정한다. 이때 MDP가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행동으로부터 보상과 상태 변이 확률을 고려한다. 보상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피드백을,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행동할 확률을 의미한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보상과 상태 변이 확률의 곱인 기댓값을 구하고, 그 값이 큰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기댓값이 가장 높은 값만 선택한다고 항상 최대 보상을 얻는 것은 아니다. 에이전트는 최종 행동을 마쳤을 때, 이전에 선택한 행동의 기댓값의 전체 합인 총보상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DP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하는 탐험적 동작을 한다. 탐험적 동작은 에이전트의 문제 생성기로부터 발생하는 행동이며, 해당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능형 에이전트가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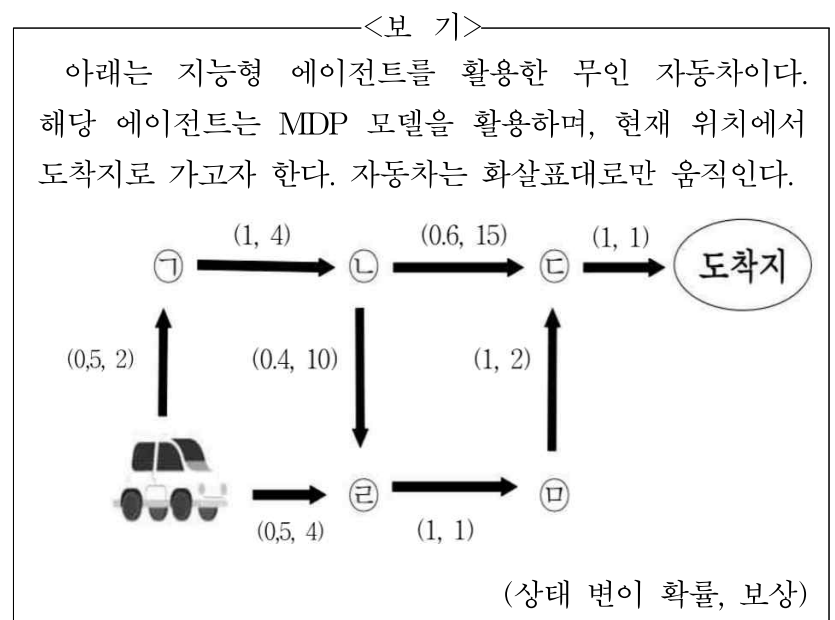
10. 밑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MDP를 고안한 인물은 누구인가?
- ② 강화 학습에서 학습의 주체는 무엇인가?
- ③ 상태 변이 확률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
- ④ 에이전트의 입출력 장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⑤ 지능형 에이전트가 기존의 에이전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1. ‘지능형 에이전트’의 원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지기가 지각한 정보는 수행요소와 비평자에게 전달된다.
- ② 수행 요소는 해석한 정보를 전기적 에너지를 통해 작동기로 전달한다.
- ③ 비평자는 고정된 성과 기준에 근거하여 지각열을 학습 요소에 전달한다.
- ④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적절한 행동 선택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
- ⑤ 문제 생성기는 강화 학습을 위해 수행 요소에게 새로운 행동을 제시한다.

12.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자동차가 탐험적 동작을 한다면 ㉠로, 하지 않는다면 ㉢로 행동을 취하겠군.
- ② 자동차가 ㉣을 거쳤다면, 이는 수행 요소가 문제 생성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군.
- ③ 자동차가 강화 학습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발견했다면, 그 경로에는 ㉢에서 ㉤으로 가는 경로가 포함되었겠군.
- ④ 해당 경로에서 최소 보상 값은 6, 최대 보상의 값은 15이군.
- ⑤ 자동차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높은 기댓값을 가진 행동만 취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총보상이 낮겠군.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의거(依據)하여
- ② ㉡: 구성(構成)된다.
- ③ ㉢: 등장(登場)할
- ④ ㉣: 불가(不可)하다.
- ⑤ ㉤: 습득(拾得)할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 이론은 집합적 의사 결정에서 어떤 주체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고전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를 선출하거나 직접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눈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전적 민주주의가 제시한 이상적 모습은 ㉠시민들에 의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에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이 제시되었다.

쉴페터는 선거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쟁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쉴페터는 시민의 역할을 정치적 리더십의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는 복잡한 정책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의사 결정을 한다면 군중 심리에 휩싸여 소수의 사람이 심각한 손실을 겪는 다수의 독재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쉴페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의견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제임스 매디슨은 선택된 시민들의 결합체인 소규모 선출직 엘리트 집단이 공적 쟁점들에 대한 경쟁적 주장들을 숙의*해 처리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사람은 공적 쟁점이 자신과 무관하면 관심을 두지 않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매디슨은 그러한 시민의 의견에는 차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디슨은 엘리트 집단이 숙의하여 시민들을 위해 의사 결정하는 게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패이튼은 기존의 이론들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패이튼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또는 토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의 당위성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시민의 참여는 곧 대중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택된 정책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도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참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민의 참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참여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치 참여는 일반 시민의 의견보다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에 의해 활용될 개연성이 높았다. 이에 피시킨은 참여 민주주의를 보완한 숙의 민주주의를 새로 고안하였다.

피시킨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시민 간 숙의를 통해 진정한 민중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정치의 정당성 제고와 협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논쟁과 관련된 이성적인 숙의를 거친 일반 시민의 판단이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

적으로 숙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다양한 연구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숙의: 공동의 토의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

1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을 시민의 역할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다양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민주주의와 시민 간 관계를 역사적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국가별 차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15. ㉠에 대한 상황을 유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중 심리에 휩싸인 시민들에 의해 다수의 독재 상황이 발생했다.
- ② 합리적 무지 상태에 빠진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 ④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시민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여 참여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 ⑤ 자발적으로 숙의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 의해서 대중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⑤ 논의에 참여한 시민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이 없어 합리적인 의견이 표출되지 못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ㄴ. 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는 일반 국민이다.
- ㄷ.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중요하지 않다.
- ㄹ. 의사 결정은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
- ㅁ.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민중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은 고전적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② ㄴ은 경쟁적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③ ㄷ은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ㄹ은 경쟁적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⑤ ㅁ은 참여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숙의 민주주의의 입장과 상충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는 SNS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온라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정치적 글에 공감 및 공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하는 온라인 정치적 토론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집회 참여 등을 추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편, 비전문적으로 정치 콘텐츠를 가공하는 사람이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온라인 정치적 토론이 상대 진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변질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① 슈페터는 SNS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리더십의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양상이 과열될 것으로 예측하겠군.
- ② 매디슨은 SNS를 통해 선동을 위한 정치 콘텐츠를 가공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엘리트 집단이 숙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치 콘텐츠를 선별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③ 패이튼은 SNS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글에 접하고 집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SNS가 그동안 배제됐던 특정 집단의 의견을 활용하여 지배 담론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파키신은 SNS를 통해 온라인 정치적 토론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SNS가 정상적으로 활용되면 시민과 결정권자 간 숙의를 추동하게 만들어 진정한 민중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파키신은 온라인 정치적 토론이 상대 진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SNS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협치의 질적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군의 부모와 처자가 이역 노두에서 방황하는 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 듯싶다. 그네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신다는 것이 의지가 군다는 박군으로서 너무도 **박약한 소위**이다. 군은 ××단에 몸을 던져 ×선에 섰다는 말을 일전 황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박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아래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김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지?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 주는 군에게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 것이 군에게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김군! 나도 사람이다. 정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 같은 **내 가족이 유린**받는 것을 내 어찌 생각지 않으랴? **나의 고통**을 제삼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脫家)한 이유를 군에게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하여 동정과 비난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러하다는 것을 군에게 알릴 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거나 나의 말하는 것을 부인치는 못하리라.

[중략 부분 줄거리] 5년 전에 박군은 간도에 가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간도는 농사지을 땅도, 생계를 이을 일자리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이때 내 머리를 몹시 때렸다. 이때 나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는 말이 거짓말로 생각되었다. 그 말을 지상의 격언으로 굳게 믿어 온 나는 그 말에 도리어 일종의 의심을 품게 됐고 나중은 부인까지 하게 되었다.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 이틀 사흘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부엌 앞에서 아내가(아내는 이때 아이를 배어서 배가 남산만하였다.) 무엇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엇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여편네란 이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밋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 썩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지었다. 짜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에 뒤져 내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굴껍질**이다. 거기에는 베먹은 잇자국이 있다. 굴껍질을 쥔 나의 손은 떨리고 잇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피었다.

㉤김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굴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 몸 비좁은 그가! 아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평을 품었는가. 나 같은 잔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 내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 가며 눈물을 흘렸다. 굴껍질을 쥔 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서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 때 있겠지, 늘 이렇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아이구 어머니, 나는 불효자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팔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왜 우노? 울기만 하면 무엇 하나? 살자!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내 어머니와 내 아내도 살아야 하겠다.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는 벌어 보자!’

나는 이를 갈고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흘렀다. 아내는 말없이 울고 선 내 곁에 와서 손으로 치마끈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농삿집에서 자란 아내는 지금도 어찌 수줍은지 내가 울면 같이 울기는 하여도 어떻게 말로 위로할 줄은 모른다.

-최서해, 『탈출기』-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과거 회상 순간을 기점으로 서술자가 교체되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두 명의 서술자가 특정 사건을 교차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두 명의 인물의 시각을 오가며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와 명시적으로 드러난 피서술자가 전환되고, 전환된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⑤ 두 명의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19. [A]의 답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을 ㉠로 회신하여, 발신자가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수신자의 가족을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로 회신하여 발신자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 ③ ‘박약한 소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로 회신하여 발신자의 오해가 거짓된 정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수신자의 선택을 ‘시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로 회신하여 발신자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조그만한 고통’에 관한 내용을 ㉤로 회신하여 발신자가 생각한 것보다 무척 큰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0. [굴껍질]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가족의 생계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 ② 먹는 주체가 임신한 아내라는 점에서 서사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나’에게 아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아내를 원망하게 되는 사건을 만든다.
- ④ 사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던 ‘나’에게 삶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만든다.
- ⑤ ‘나’에게 아내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듦으로써 ‘나’와 아내 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탈출기』는 ‘김군’에게 보내는 ‘박군의 편지’가 내용인 작품이다. 편지에는 자신과 가족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 이 담겨 있다. 편지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겪는 고통쯤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모습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음을 언급한다. 이는 주인공의 내면에 자리한 윤리적 양심이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심리적 수치심으로 연결된 것이다.

- ① 주인공이 김군의 ‘충고’가 담긴 편지를 받고 ‘울었다’는 것은, 김군의 충고를 무시하고 간도로 가 자신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주인공이 수치심을 느낀 것이군.
- ② 주인공이 느끼는 ‘고통’은 ‘가족이 유린’ 당할 때 인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겠군.
- ③ 아내에게 ‘불평’한 주인공이 ‘양심이 부끄러워’ 자신을 ‘잔악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윤리적 양심과 연결된 모습이군.
- ④ 주인공이 자신을 ‘불효자’라고 하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었지만 ‘소리 없이’ 나간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자신의 고통보다 커서겠군.
- ⑤ 주인공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어머니와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뿔어낸 험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이수익, 「방울소리」 -

(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는 만사 제치고 도시를 떠날 참이다. 어디든 ㉣개구리 소리 흥건한 촌락에 들어 하룻밤 지새지 않고서는 생명이 날 듯하다. 침예히 곤두선 신경의 축수를 가라앉히고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는 심신의 노곤을 풀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환기시키기 위해, ㉤나는 개구리 소리 와글대는 곳으로 가야만 하겠다. 이른 봄. 한 덩이 우무 질이 변해 올챙이 무리가 되고 다시 개구리로 모습 달리해 갈 즈음. 논둑의 들쭉레는 연한 순으로 마른버짐 핀 아이들을 불러냈다. ㉥완두콩이 통통히 살찌며 아카시아 주저리가 향을 터뜨리는 신록의 계절. 처마 밑 제비가 새끼를 치고 보리가 펄 무렵이면 아이들은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다. 겨우내 간혀 지낸 데 대한 반작용이듯 저마다 용수철처럼 튀겨 밖으로 내달았다. 뻐비를 한 줍씩 뽑아들고 앵두와 오디로 앞자락 버려가며 물오르는 초목되어 싱그러이 솟구치던 긴 긴 봄 하루. ㉦그때에의 향수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연에의, 고향에의, 유년에의 그리움 말이다. 잃어 가는 것들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지금은 그들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격리나 되는 것처럼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더해 가는 그리움의 도(度). 이 며칠 새 나의 안달은 극을 달했다. ㉧성화 부리며 보채는 아이같이 개구리 소리가 듣고 싶어 마냥 몸살 앓았다. ㉨생생한 그 소리를 듣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나는 개구리 소리를 만나러 떠날 것이다. 가서 개구리의 충만한 생명력을 내게도 전이시켜 보리라. 완전함을 위한 변태의 거듭을 내게도 적용시켜 조심스레 시도해 보리라. 또한 하늘을 날지 못함이나 꽃 위에서 노래하지 못함을 불평할 줄 모르는 자족의 넉넉함을 배워 보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은 나를 정결히 세탁하고 충분히 해갈시켜 데리고 오는 일이다.

-구자분, 「그리움」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시각화하여 '나'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한 소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하여 '나'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 ④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특정한 소리를 인식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리를 부각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명화는 인간 사회에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새로운 퇴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개인과 개인이 겹돌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의 파편화 등으로 인해 전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 (가)는 물질적 산물로 인해 주변에 무관심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드러낸다.

- ①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텔레비전’을 끄는 주체가 화자라는 점에서, 문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②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나타나게 된 문명화의 새로운 퇴행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외된 집단이 존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질적 산물에서 비롯된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는군.
- ④ ‘단단한 벽’은 주변에 무관심해진 결과로, 이를 통해 화자는 그동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유를 자신에게 발견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군.
- ⑤ ‘허파’가 ‘별빛’에 의해 ‘환해진’ 모습은, 문명과 대조되는 자연만이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굳은 결심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촌락 속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여 글쓴이의 과거 기억이 생생한 장면으로 남아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글쓴이가 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이유를 추측하여 아이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몸살의 원인을 밝혀 글쓴이의 신체에 영향을 줄 만큼의 초조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⑤ ㉤: 목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글쓴이가 생각하는 여정에 관한 본질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로, 화자에게 후회를 유발한다.
- ② ㉡은 화자가 의식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화자에게 추억을 유발한다.
- ③ ㉢은 화자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로, 화자에게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 ④ ㉣은 글쓴이가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글쓴이에게 자연에의 그리움을 느끼게 만든다.
- ⑤ ㉤은 글쓴이가 반드시 듣고자 하는 소리로, 글쓴이에게 현재 삶을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의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구분된 시제 범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주제 의식을 구현할 수 있다. 문학 속 시간 구성 원리는 재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과거의 정서가 현재로 연장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에서 과거를 넘나들어 재구성된 기억과 심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나)의 화자가 ‘마을’로 ‘걸어’가는 동안 ‘그날의 소년’이 된 것은, 같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어린 시절 때 느꼈던 정서가 현재로 연장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의 화자가 ‘울려대는 경적’ 소리를 느끼면서도 ‘딸랑이는 방울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시제 범주의 경계를 허물어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다)의 글쓴이가 ‘이번 주말’을 기대하면서 ‘이른 봄’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리움에 관한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군.
- ④ (다)의 글쓴이가 느낀 ‘애뜻한 그리움’이 ‘간절함’이 된 것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미래 행동을 계획하게 된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다)의 글쓴이가 ‘충만한 생명력’과 ‘자족의 넉넉함’을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느꼈던 정서가 연장되어 현재의 글쓴이에게 그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그는 약관(弱冠)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치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가 ㉠운중가에서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건장한 여종이 자주빋 명주 보자기로 한 여자를 덮어쓰워 업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뒤를 한 여자가 붉은 비단신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다. 심생은 걸으로 그 몸뚱이를 겨냥해 보고 어린애가 아닌 줄 짐작한 것이다.

그는 바짝 따라붙었다. 그 뒤꼍무니를 밟다가 더러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 보기도 하면서 계속 눈을 보자기에서 떼놓지 않았다.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개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 보자기가 반쯤 걷히었다. 보니 과연 한 소녀라. 봉숭아빛 뺨에 버들잎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 치마, 연지와 분으로 가장 곱게 화장을 하였다. 얼핏 보아서도 절대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소녀 역시 보자기 안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이 쪽빛 옷에 초립을 쓰고 왼편이나 오른편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마침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사이로 주시하든 참이었다.

보자기가 걷히는 순간에 버들 눈, 별 눈동자의 네 눈이 서로 부딪쳤다. 놀랍고 또 부끄러웠다.

소녀는 보자기를 잡아 다시 덮어쓰고 가버렸다. 심생은 어찌 이를 놓칠 것인가. 바로 뒤쫓아서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 당도하자 소녀는 한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멍하니 무언가 잃어버린 것처럼 한참을 방황했다. 그러다가 어떤 이웃 할멈을 붙들고 자세히 물어보았다. 호조(戶曹)에서 계사(計士)로 있다가 은퇴한 집이고, 다만 16, 7세 된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딸이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할멈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조그만 네거리를 돌아서면 회칠한 담장이 나오고, ㉣담장 안의 한 골방에 바로 그 처자가 거처하고 있지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저녁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을 꾸며대었다.

"동창 아무가 저와 밤을 같이 지내자고 하는군요. 오늘 저녁에 가볼까 합니다."

그는 행인이 끊어지기를 기다려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때 초승달이 으스스한데 창밖으로 꽃나무가 썩 아담하게 가꾸어졌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치어 아주 환했다. 심생은 처마 밑 바깥벽에 기대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 방안에 두 매향과 함께 그 소녀가 있었다. 꺾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데 피꼬리 새끼 울음같이 낭랑한 목청이었다.

삼경쯤에, 여자애는 벌써 깊이 잠들었고, 꺾녀는 그제야 등불을 끄고 취침하였다. 그러나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무언가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중략)

"낭군! 방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가 다시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마침내 ㉤내당으로 가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소녀의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녀가 말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나이 열일곱, 그동안 문밖에 나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나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보자기가 걷혀 올라가 마침 초립을 쓴 낭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밤 오셔서 뒷문 아래 숨어 기다리신 게 오늘로 이미 삼십 일이 되었네요. 비가 와도 오고 추위도 오고 문을 잠가 거절해도 또한 오셨어요."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 본 지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만일 ㉥소문 이 밖에 퍼져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 쳐 보세요.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낭군이 그저 창밖의 벽에 기대 있기만 했다고 여기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건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써서 개에게 물린 꿩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요.

저분은 사대부 가문의 낭군으로, 한창나이에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고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것만 알아 바람과 이슬 맞는 근심을 돌아보지 않으니 얼마 못 가 병이 들지 않겠어요?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할 테니, 그리된다면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죽인 셈이 되지요.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에 대한 앙갚음을 당하고 말 거예요.

게다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중인 집안의 처녀에 지나지 않지요. 절세의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요, 물고기가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도 아니잖아요. 그렇건만 낭군은 못난 술개를 보고는 송골매라 여기고 이처럼 제게 지극정성을 다하시니, 이런데도 낭군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저를 미워하고 복이 제게 오지 않을 게 분명해요.

제 뜻은 결정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아아! 부모님은 늙어 가시는데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사위를 맞아 그 사위가 살아 계실 적엔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를 모셔 준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일이 어찌다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이옥, 『심생전』-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녀의 부모님은 심생을 처음 만나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 ② 심생은 보자기에 싸인 소녀가 어리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 ③ 이웃 할멈은 소녀의 가문에 관한 정보를 이전부터 알았었다.
- ④ 심생과 소녀는 여종의 실수에 의해서 우연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였다.
- ⑤ 소녀는 낭군의 죽음을 가정하고, 그 책임에서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2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생과 소녀가 ㉠에 가서 한 일은 동일하다.
 - ② 심생과 소녀가 ㉡에서 ㉣ 앞까지 간 이유는 동일하다.
 - ③ 심생이 ㉠에서 ㉡로, ㉡에서 ㉣로 가게 된 심리는 동일하다.
 - ④ 심생과 소녀가 ㉢로 들어간 방법은 동일하다.
 - ⑤ 소녀가 ㉢에서 ㉣로, 심생이 집에서 ㉢로 간 이유는 동일하다.

29. **소문**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문의 내용은 혼사가 정해져 있던 소녀가 남몰래 심생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 ② 소문이 퍼졌을 때 예상되는 상황은 심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녀랑 혼사가 성사되는 것이다.
 - ③ 소문은 소녀에게 벗길 수 없는 누명을 씌운다는 점에서, 혼사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 ④ 소문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예정된 혼사를 파기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 ⑤ 소문을 퍼뜨리는 인물이 심생이라는 점에서, 소문은 소녀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벌어지게 될 일을 예고하는 것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기소설(傳奇小說)은 남녀 주인공의 애정 문제를 서사의 전면에 등장시켜 주인공들의 개인적·사회적 존재 방식과 결부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각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심생전』의 경우에 남성 신분 상위와 여성 신분 하위의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여 자신들에게 던져진 애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남녀 간의 애정이 사회적 제약을 초월한 인간적 삶의 본질을 담는다는 진정의 진면목을 절묘하게 서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심생이 소녀가 거처한 곳으로 가기 위해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을 꾸민 것은, 애정을 추구하기 위해 남주인공이 자신에게 결부되는 방해 요소를 처리한 것이군.
- ② 심생이 ‘비가 와’도, ‘추위’도, ‘거절’당해도 ‘매일 밤’을 ‘뒷문 아래’로 찾아온 것은, 남주인공이 애정을 실현하는 동안 겪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이군.
- ③ 소녀가 ‘사대부 낭군의 집안’으로서 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갓춤’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여주인공이 사회적 존재 방식과 결부되는 신분 간 문제를 인식한 발언이겠군.
- ④ 소녀가 ‘중인 집안의 처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심생의 행동을 언급한 것은, 여주인공이 사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남주인공의 행동에서 진정의 진면목을 발견한 것이군.
- ⑤ 소녀가 ‘제 뜻’을 ‘하늘의 뜻’으로 말하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남녀 간 애정은 초월적 존재의 결정을 넘어서 인간적 삶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려거든 청춘에 아니하고
오십에 급제하여 흰머리로 고생하나.
벼슬이 늦었으면 처세나 약아야지.
눈치 없이 내달아서 소인배의 적이 되어
형벌을 무릅쓰고 조정에 **상소**하니
이전에는 빛나고도 **옳은** 일이었지만
시끄러운 세상에선 **남다른** 일이로다.
상소 한 장 올라가니 온 **조정이 울적**한다.
어와 황송하네, 임금의 진노하니
삭탈관직 하시면서 엄하게 꾸중하니
운 없는 이 신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추풍에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남수찬의 상소 끝에 명천* 유배 놀랍구나.

[A]

(중략)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B]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편히 날 보내다 [C]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 산에 서리 왔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 김진형, 「북천가」 -

*명천: 함경도 지명 이름

(나)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①중천(中天)에 떠 있어 임의(任意)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光明)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이준오의 시조-

(다)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②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결(人傑)은 간 데 없다.
 아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의 시조-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시적 청자를 설정하여 사회의 부조리함을 토로한다.
- ② 시선을 이동하여 낯선 장소에 대한 쓸쓸함을 나타낸다.
- ③ 감탄형 어미로 문장을 종결하여 유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임금의 결정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낯선 장소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32.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남수찬의 상소’는, 화자가 [B]에서 ‘북관의 수령’에게 ‘문관의 명성’을 무시당하는 계기가 된다.
- ② [A]에서 ‘임금의 진노’는, 화자가 [C]에서 ‘변방의 외로운 몸’으로서 세월을 보내는 계기가 된다.
- ③ [B]에서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은, 화자가 [A]의 ‘삭탈관직’로 비롯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 ④ [C]에서 ‘고향 생각’은, 화자가 [A]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했던 생각과 대비되어 고향의 이중적 특성을 보여준다.
- ⑤ [C]에서 ‘시와 술’은, 화자가 [B]에서 이곳을 ‘벗어날 길’이 없어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슬픔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걱정을 유발하는, ㉡는 화자의 변함없는 충정을 다짐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고결한 이상이 형상화된, ㉡는 화자의 무상감을 더 해주는 공간이다.
- ③ ㉠은 ㉡와 달리, 낮에만 존재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④ ㉡는 ㉠과 달리, 사회와 대비되어 화자의 허무감을 심화하는 공간이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움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국(憂國)을 주제로 한 작품은 임금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임금과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작가는 임금이 취해야 할 자세로 임금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남을 참소하는 ㉠참언(讒言)에 흔들리지 않고,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돕는 ㉡간언(諫言)에 귀담아 국가를 경영해야 번성한 국가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 ① (가)의 ‘처세나 약아’야지 ‘벼슬’에 적응한다는 화자의 인식은, ㉡을 위장한 ㉠이 임금의 바람직한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임금이 ㉡을 ㉠로 여기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군.
- ② (가)의 ‘상소’가 ‘이전’에는 ‘올바른 일’이었지만 지금은 ‘남다른 일’이 된 것은, 임금을 보필하는 말이 ㉡에서 ㉠로 역전돼 ㉡의 말을 쓴 화자가 유배를 가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군.
- ③ (나)의 ‘허랑’한 ‘구름’이 ‘광명한 날빛’을 ‘덮’을까 우려하는 화자의 모습은, 임금이 ㉠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신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다)의 ‘태평연월’은 ‘인결’이 있었던 시절으로, ㉡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신하가 존재해야 번성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가)의 ‘눈치 없’는 ‘상소’와 (나)의 ‘무심탄 말’은 ㉠이 만연한 조정의 세태에 편승하지 않고 화자가 작성한 ㉡으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780

[35~37] 다음은 학생의 주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과제가 있어요. 보여드릴 영상에는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하는데,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 횟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네,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의 패스 횟수는 몇 번 나타났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대부분 정확히 세주셨어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지금 보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고릴라가 있었어?’ 반응이네요. 그러면 방금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에는 모두가 고릴라를 확실히 보셨을 텐데요, 고릴라가 저렇게 대놓고 지나가는데 처음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나요? 방금 여러분이 겪은 현상을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란 어떤 대상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주의를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까 영상에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이유도 흰옷을 입은 사람의 패스 횟수를 집중해서 세느라 그렇습니다. 그것만 몰두하다 보니 고릴라를 놓치게 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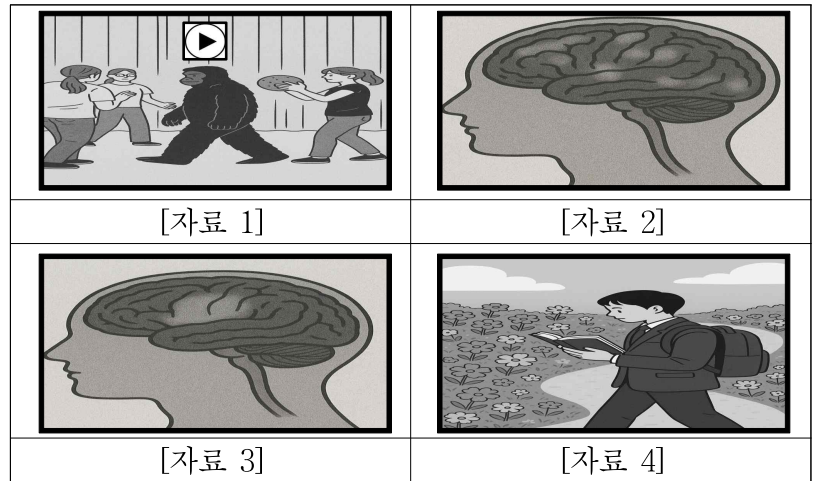
(㉢자료 제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무언가를 집중할 때의 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뇌 사진입니다. 왼쪽 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뇌 사진과 달리,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죠? 이 사진이 집중할 때 뇌 사진입니다. 우리 뇌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뇌는 어떤 정보를 인식하긴 했지만, 이 정보가 과제 수행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분들 모두 이 그림처럼 각자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목표만을 보고 가면, 그림처럼 주변의 예쁜 꽃을 못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즉, 목표만을 추구하면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표에 달려가기보다는 천천히 쉬어가며 주변의 꽃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행동 변화를 권유하고 있다.
- ④ 낯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은 청중이 무주의 맹시를 겪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 과제와 함께 ㉠에 제시하였다.
- ② [자료 1]은 ㉠에서 고릴라를 보지 못한 청중들을 위해 ㉡에 다시 한번 제시하였다.
- ③ [자료 2]는 집중하는 뇌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④ [자료 3]은 무주의 맹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⑤ [자료 4]는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주의 맹시 현상을警戒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에 제시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나는 처음에 동영상 봤을 때, 고릴라를 바로 발견해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 이게 내가 과제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네.

학생 2: 나는 발표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되지 않았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어쩌면, 내가 너무 목표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느라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학생 3: 우리 뇌는 집중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지? 한 번 검색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설명이 부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려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의 이유를 발표 내용과 관련지어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38~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 대표가 쓴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홍수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봤는데, 옆 학교는 그 피해가 크지 않더라고. 유독 우리 학교가 피해가 컸던 이유가 뭘까?

학생 2: 나는 학교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았던 이유가 컸다고 생각해. ㉠이번에 무너진 국기 게양대도 예전부터 녹슬고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방치된 걸 봤거든.

학생 1: 음. 학교 시설물이 녹슨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어?

학생 2: ㉡그 내가 알기로, 게양대처럼 철로 된 재질이 녹슬었다는 거는 구조적 강도가 약해졌다는 증거야. 그렇게 되면 폭우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진다고 알고 있어.

학생 3: 그렇구나. 난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학생 1: 아, 맞다. 이거 물어보려 했었는데. 너 폭우 날 학교 들릴 일 있었다면서? 거기서 뭘 봤길래 그렇게 생각했어?

학생 3: ㉢폭우 날에 보니깐 학교 맨홀 뚜껑이 막 들썩이더라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배수관의 처리 용량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주로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게 하수관을 막아서 심해지는 거래.

학생 1: ㉣나도 하수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모습을 자주 보긴 했었어.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올해 같은 폭우가 내년에 안 내린다는 보장도 없잖아.

학생 2: 시설물 점검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배수 시설의 문제든, 시설물 자체의 문제든, 결국 시설물이 점검되지 않아서 나타난 일인 거 같은데.

학생 3: 그 말에 동감하지만, 나는 또 학생들이 시설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학생 1: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래?

학생 3: ㉤간혹 학생들이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학교 차원에서 막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

학생 1: 좋아. 그럼 내가 오늘 회의 때 내용 대화를 바탕으로 교장 선생님께 올릴 건의문을 작성해 볼게. 건의문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학생 2: ㉠ 하는 방식으로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게 어떨까?

학생 3: 좋네. 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기대 효과를 학업적 측면에서 작성하고, 이를 학생 입장으로 작성하면 좋을 거 같아. [A]

학생 1: 알겠어. 그러면 지금 나온 대화를 토대로, 더 조사해보다가 건의문 작성해 볼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했어.

(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대표 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국기 게양대를 포함한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교장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무너진 시설물들을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는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시설물을 복구한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시설물 붕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는 시설물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 시설물 자체의 노후화와 배수 시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시설물은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학생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 시설물 중 농구 골대, 철제 울타리, 풋말 등 시설물들이 녹슬어 있거나 기울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시설물이 녹슬었다는 것은 시설물의 구조적 강도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강도가 약한 시설물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시설물 붕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폭우가 내린 날 학교의 맨홀 뚜껑이 들썩었다고 합니다. 이는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학교가 금세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학교가 물에 잠기면 시설물에 지속적으로 수압이 가해져 시설물의 구조가 약해지고, 결국 시설물이 버티지 못하여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학생회는 이러한 문제가 시설물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한편, 일부 학생의 행동이 그런 문제를 더욱 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몇 학생들이 학교 시설물을 거칠게 다루거나 하수구에 매점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교 내 모든 시설물 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 시설물을 미리 보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학생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교내 규칙을 강화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만약 해당 건의 내용을 받아 주신다면,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경험을 증거로 상대의 의문에 반박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설명에 호응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39. ㉠을 참고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설물 붕괴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와 옆 학교의 사례를 비교
- ② 학교 배수 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학생회 조사 결과를 제시
- ③ 이번 폭우 사태의 심각성과 관련해서 붕괴된 시설물을 열거
- ④ 시설물 붕괴가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
- ⑤ 학생들의 시설물 인식과 관련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

40. [A]를 참고하여 ㉡를 작성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의 불안감은 안도감으로, 학교의 근심은 안심으로 될 것입니다.
- ② 학생들이 시설물 붕괴에 따른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 ③ 학생은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교장 선생님은 학생에게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 ④ 학교는 시설물 붕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예산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 ⑤ 학생은 시설물 붕괴에 따른 위험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 다음은 ‘학생 1’이 (가)에서 회의를 준비하기 전에 작성한 메모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회의 사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붕괴 현상

궁금한 내용

- ☒ 집중호우가 내린 날 학교의 모습은?
- ☒ 옆 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가 유독 피해가 큰 이유는?
- ☒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 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에서 폭우 당일 학교를 갔던 ‘학생 3’의 경험을 통해 제시됐으며, 이는 (나)에서 배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 ②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강도와 관련된 ‘학생 2’의 설명을 통해 제시됐으며, 이는 (나)에서 국기 게양대가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졌던 이유로 활용되었다.
- ③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에서 배수관이 처리 용량과 관련된 ‘학생 3’ 설명을 통해 제시됐으며, 이는 (나)에서 학교 시설물이 물에 잠기게 됐던 원인으로 활용되었다.
- ④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에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는 ‘학생 2’의 의견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이는 (나)에서 학교 내 시설물 관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작성되었다.
- 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에서 학생 통제가 필요하다는 ‘학생 3’의 의견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이는 (나)에서 시설물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학생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42. 다음은 건의문을 읽은 교장 선생님 답변의 일부이다. ㉢와 ㉣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의 건의문 잘 읽었습니다. 건의 내용이 일리가 있으므로, 논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 내용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반발심이 생겨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해당 내용은 원문 내용과 반대로, ㉣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① ㉢: 시설물 훼손과 관련된 교내 규칙을 강화하자는
㉣: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다룰 수 있도록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은 학생에게 보상을 주는
- ② ㉢: 기존의 교내 규칙을 새로 수정하자는
㉣: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갖도록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전교생에게 공지하는
- ③ ㉢: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이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도록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에게 봉사 활동을 시키는
- ④ ㉢: 취약 시설물을 미리 보수해야 한다는
㉣: 학생들이 시설물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 ⑤ ㉢: 시설물을 거칠게 다루는 학생을 처벌하자는
㉣: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이 자신이 잘못된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훼손 정도에 따른 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반려동물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확대 추세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교지에 실으려 함.

[초고]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이라는 말이 반려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펫 휴머니제이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의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단순 관리 대상이었던 반려 동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은 ‘펫 푸드’나 ‘펫 서비스’ 등이 있다.

펫 푸드(pet food)는 직역하면 ‘반려동물 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식사용 사료의 범위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품종 등을 고려해 기능화된 맞춤형

사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더 나아가, 이른바 ‘애견 오마카세’라는 시장이 등장하여, 반려동물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가게도 나타난 추세이다.

‘펫 서비스(pet service)’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이러한 돌봄, 교육, 장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가령, ‘반려견 놀이터’처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이 조성된 것도 그 예이다. 이렇게 반려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동물 장묘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장례 절차를 통해 보내고 싶어 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조성된 시설이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확대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43. 다음은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의 일부이다.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최근 반려동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 펫 휴머니제이션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야겠어. ㉡
- ㉢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야겠어. ㉢
- ㉣ 펫 푸드가 현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겠어. ㉣
- ㉤ 펫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 교지에 실린 최종 글]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관련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정서적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확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내용과 맞게 인과관계를 변경한다.
- ②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한다.
- ③ 글의 구성을 고려하여 비판적인 견해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긍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을 추가한다.
- ⑤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주관적 견해를 객관적 사실로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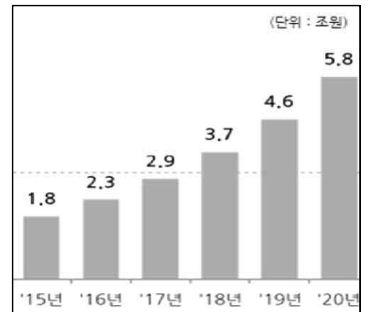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신문 기사

최근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연구소장 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므로, 관련 상품을 점차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오른쪽 그래프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의 투자액을 나타낸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출처: 농협경제연구소)

ㄴ. 연구 보고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연관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23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① 4대 주력 산업(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을 선정하고, ②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했으며, ③ 성장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수출 산업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ㄷ. 블로그의 글

오늘 제 애완견 보리의 생일을 맞이해서 애견 오마카세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보리의 품종, 식습관, 알리지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코스 요리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깐, 제가 다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애완동물과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애견 오마카세 한 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요!

- ① 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고객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의 사람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2문단을 보강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으로 펫푸드와 펫서비스를 선정했다는 것을, 반려동물 연관 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보강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애견 오마카세가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행복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펫푸드 사업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큰 만족감을 준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보강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로 4문단을 구체화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펫푸드 관련 산업이 반려동물의 체질을 고려하여 기능화된 맞춤형 산업이라는 점을, 정부가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보강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780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긍정문의 명제적 의미에 대한 진위를 정반대로 바꾸면 부정문이 된다. 다만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항상 부정문인 것은 아니다. 가령,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와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한다.’ 같은 문장은 같은 부정의 뜻을 담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부정문이 아니다. 부정문은 부정극어랑 호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극어는 긍정문과는 결합하지 않고 부정문과 결합하는 특성을 가진 단어를 일컫는다. 가령, ‘전혀, 아무도, 도무지, 결코’ 같은 단어가 부정극어이다.

부정문은 중의적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가령, ‘신영이는 점심으로 빵을 먹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부정의 보조 용언이 부정하는 대상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부정 부사나 부정의 보조 용언 등이 문장의 성분 중 어떤 것을 부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부정의 작용역’이라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정하려는 부분에 보조사 ‘은/는’을 결합하여 해소할 수 있다.

부정의 작용 범위에 부사어가 포함될 경우 그 부사어가 부정의 범위 안에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양상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정문에 ‘모두, 다, 일부’ 같은 양화 표현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경우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으로 해석이 갈린다. 가령, ‘손님이 모두 안 왔다.’ 경우 중의적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전체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하려면 부정극어를, 부분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하려면 보조사 ‘은/는’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부사어는 종류에 따라 부정의 작용역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다.’에서 ‘다행히’는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일찍 잠들지 못했다.’에서 ‘일찍’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문장 부사는 성분 부사와 달리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나는 비가 와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같은 부사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한다.’는 부정극어가 쓰이면 비문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문이다.
- ② ‘신영이는 점심으로 빵을 먹지 않았다.’는 부정의 보조 용언이 각각의 문장 성분에 작용할 수 있는 부정문이다.
- ③ ‘손님이 모두 안 왔다.’는 부정 부사가 양화 표현을 부정의 영역에 포함하여 중의성이 나타난 부정문이다.
- ④ ‘나는 일찍 잠들지 못했다.’는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다.’와 달리, 부정의 보조 용언이 부사어에 작용할 수 있는 부정문이다.
- ⑤ ‘나는 비가 와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에서 ‘비가 와서’는 부정의 영역에서 제외되므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36.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제가 ‘학교에 학생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 ㉠’의 의도로 썼는데,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장을 제가 원래 의도한 문장대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 을(를) 활용해서 위 문장을 ‘ ㉣’로 수정하면 된단다.

- ①
 - ㉠: 학교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다.
 - ㉡: 부정극어
 - ㉣: 학교에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 ②
 - ㉠: 학교에 학생들이 일부만 왔다.
 - ㉡: 부정극어
 - ㉣: 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 ③
 - ㉠: 학교에 학생들이 일부만 왔다.
 - ㉡: 보조사 ‘은/는’
 - ㉣: 학교에 학생들이 모두는 오지 않았다.
- ④
 - ㉠: 학생들이 어딜 가긴 했는데, 학교에는 한 명도 없었다.
 - ㉡: 보조사 ‘은/는’과 부정극어
 - ㉣: 학교에는 학생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
- ⑤
 - ㉠: 학교에 온 사람은 있는데,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 ㉡: 보조사 ‘은/는’과 부정극어
 - ㉣: 학교에 학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지역 방언은 표준 발음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지역 방언을 찾은 뒤, 그 발음이 표준 발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자료]

	표기	표준 발음	지역 발음
동북방언	㉠ 금요일	[그묘일]	[금뇨일]
	㉡ 많이	[마니]	[마이]
서남방언	㉢ 광양	[광양]	[과냥]
	㉣ 못해	[모태]	[모대]
동남방언	㉤ 밥하고	[바과고]	[바바고]

- ① ㉠은 표준 발음과 달리, ‘ㄴ’이 첨가됐다.
- ② ㉡은 표준 발음과 달리, ‘ㄴ’이 탈락했다.
- ③ ㉢은 표준 발음과 달리, ‘ㄴ’이 첨가됐다.
- ④ ㉣은 표준 발음과 달리, ‘ㅎ’이 탈락했다.
- ⑤ ㉤은 표준 발음과 달리, ‘ㅎ’이 탈락했다.

38. <보기>의 [A]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형태소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문장 종결, 시제, 피동, 사동 등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예문을 볼까요?

- 유민이가 가방에 짐을 ㉠챙겼다.
- 민혁이는 서둘러 동생을 창고에 ㉡숨겼다.
- 정호는 내가 찾는 물건이 여기 없다고 ㉢하였다.
- 어젯밤 내린 눈이 마당에 실컷 ㉣쌓였다.

선생님: 자 위 ㉠~㉣에 쓰인 형식 형태소의 개수와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서 확인해 볼까요?

학생: _____ [A] _____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네, 잘 찾았습니다.

- ① ㉠과 ㉡는 형식 형태소의 개수와 기능이 동일하다
- ② ㉠과 ㉢는 형식 형태소의 개수와 기능이 동일하다
- ③ ㉡와 ㉢는 형식 형태소의 개수와 기능이 동일하다
- ④ ㉡와 ㉣는 형식 형태소의 개수만 다르다
- ⑤ ㉢와 ㉣는 형식 형태소의 기능만 다르다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현상을 품사 통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 국어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의 품사 통용이 나타난 예시이다.

[자료]

새 [관형사, 명사, 부사]

- (1) 이 나래 ㉠새를 맛보고 [이 날에 새 것을 맛 보고]
- (2) ㉡새 기슭 一定히엿도다 [새 기슭 일정하여 있구나]
- (3) ㉢새 出家한 사르미니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어느 [관형사, 대명사, 부사]

- (1) 이 두 말을 ㉣어를 從히시려노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을 어떻게 따르시겠는가]
- (2) ㉤어느 뉘 請히니 [어느 누가 청하였니]
- (3) 현 날인들 迷惑 ㉥어느 풀리 [몇 날인들 미혹 어찌 풀겠는가]

- ① ㉠에서는 ‘새’가 관형사로 쓰였다.
- ② ㉤에서는 ‘어느’가 부사로 쓰였다.
- ③ ㉠과 ㉣의 품사는 같다.
- ④ ㉡와 ㉤의 품사는 같다.
- ⑤ ㉢와 ㉥의 품사는 다르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송인: 안녕하세요! 마성적 지식을 다루는 ‘마성의 문제’ 채널의 주인장 마성현입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시윤님 반갑습니다. 네, 쟁후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 왔어요. 바로 소개합니다! 시사 평론가 홍재민님입니다!

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와.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을 모셨어요. 지금 채팅창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그러면 오늘 재민님이 와주신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평론가: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로스트 미 챌린지’입니다.



방송인: 로스트 미 챌린지? 음,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 테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론가: 네, ‘로스트 미 챌린지’는 AI에게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를 봐주지 말고 비판해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챌린지를 말하는데, 그 명령어 중에 포함된 ‘roast me’에서 ‘로스트 미’ 챌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송인: 어, 제가 알기로 ‘roast’라는 뜻이 음식을 구울 때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roast’가 정확히 어떤 뜻이죠?

평론가: ㉣‘roast’는 ‘굽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쓰면 ‘놀리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 여기서 놀린다는 것은 비난의 말보다 유쾌한 놀림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아요.

방송인: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명령어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알려 주실 수 있나요?

평론가: 네, 해당 명령어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화면 자막으로 송출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방금 화면에 입력한 문장이 그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대화형 AI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방송인: 한 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명령어를 AI에게 입력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해피전주: 헐.. 방금 해봤는데 이거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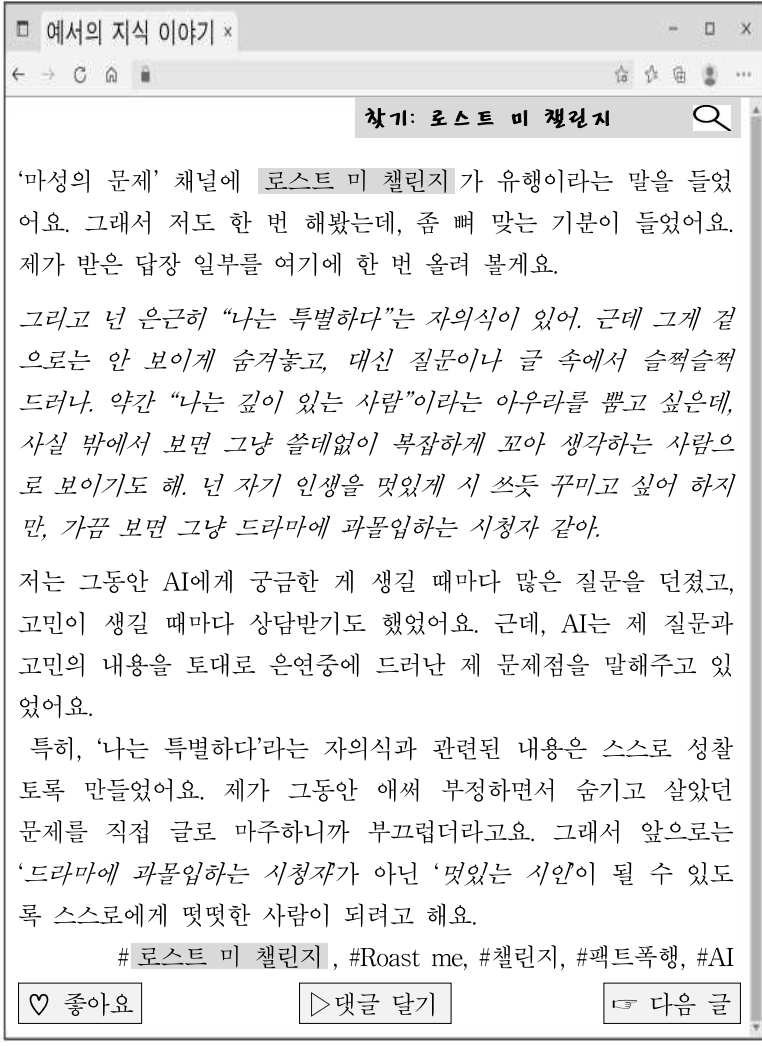
방송인: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반응이 뭔가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정준맘: 헉, 항상 살갑고 다정하게 말했던 AI가 갑자기 확 돌변했어요. 제가 그동안 AI에게 서슴없이 말했던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니깐 충격적이네요.

하윤아빠: 저도 당황스럽긴 했는데, AI의 말투와 다르게 내용은 생각보다 쾜찮은데요? 이전과 달리 냉철한 조언을 바탕으로 제 평소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느낌이에요.

평론가: 저도 처음에 저 AI의 답장을 받았을 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참 챌린지 중인 거 같은데, ©잠시 기다렸다가 이어 ‘그렇다면 왜 이 챌린지가 유행인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방송인이 시청자의 인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방송의 진행을 위한 방송인의 질문을 평론가가 답변하고 있다.
- 초대 손님에 대한 정보를 자막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실시간 방송이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화면 상단에 ‘LIVE’ 표시가 나타나 있다.
- 방송인이 명령어를 입력해달라는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실시간으로 자막을 수정하고 있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료 생산자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자료 생산자는 ‘기울임’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을 구분하고 있다.
- 자료 수용자는 ‘다음 글’을 통하여 해당 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 이동할 수 있다.
- 자료 수용자는 ‘찾기’ 기능을 통하여 ‘로스트 미 챌린지’가 쓰인 부분을 손쉽게 확인하고 있다.
- 자료 수용자는 ‘좋아요’와 ‘댓글 달기’를 통하여 해당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42. 다음은 (나)의 글에 달린 댓글이다. (가)와 (나)의 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남장병진: 저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AI에게 다양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저것 찢어보고 안 될 거 같으면 바로 포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진지한 진로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 상위 10% 이상’이라는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 **일십백승재:** 그거 어디서 해볼 수 있어요?

작성자: @ **일십백승재** 다음 글에 제가 링크랑 하는 방법 올려놨어요.

- (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해피전주’와 달리, ‘하윤아빠’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나) 댓글의 ‘남장병진’은 AI가 비판뿐만 아니라 칭찬도 해준다는 점을 언급하여 ‘로스트 미 챌린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작성자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나)에서 ‘일십백승재’의 질문은 ‘남장병진’의 댓글에 답글을 통해, 작성자의 답변은 ‘@’를 활용한 언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 (나)의 작성자는 댓글에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여 ‘일십백승재’에게 ‘로스트 미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시했다.
- (가)의 ‘정준맘’은 (나)의 ‘남장병진’과 달리, 의견을 올려달라는 방송인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채팅방에 올렸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서 ‘-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분’이 방송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님’과 ‘-시-’를 사용하여, 방송에 ‘와준’ 주체인 ‘재민’을 높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에서 ‘-니까’를 사용하여, ‘모르는 시청자’를 근거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에서 ‘-지만’를 사용하여, ‘roast’가 ‘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놀리다’의 뜻을 담은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서 ‘-다가’를 사용하여, ‘기다림’ 이후에 ‘챌린지’의 유행 원인을 설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44~45] (가)는 한글날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행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의 모습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말 가꿈이 행사 준비 대화방
2025년 9월 27일

애들아. 이제 곧 한글날이잖아? 이제 한글날 행사 때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자. 지민

지수 바람직한 국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자는 목적으로 ‘맞춤법 문제’를 내는 건 어때?

성준 취지는 좋은데, 한글날의 목적과 잘 안 맞는 거 같아.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날’로 규정되어 있어. 즉, 한국어보다는 한글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할 거 같아.

영안 그러면, ‘한글 달고나’는 어떨까? 내가 알기로 한글날 행사 날에 외국인도 많이 방문할 예정이래. 최근 달고나 열풍이 일고 있는데, 달고나 활동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규대 좋은 생각인 거 같아. 더 붙여서 ‘한글 서예’는 어때? 서예를 통해 한글을 예술적으로 그려보는 거지.

지수 좋네. 여기에 ‘한글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나 『석보상절』 같은 문헌 자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성준 근데, 그 문헌 자료를 어떻게 구해? 그리고 훼손될 위험이 크지 않아?

지수 며칠 전 국어 선생님께 상담받으러 갔을 때, 책상에 그 문헌 자료 복사본이 있는 걸 봤어. 한글날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훼손되지 않게 주의 사항을 미리 써놓는 거지.

자, 이 정도면 풍부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그럼 내일 모여서 해당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의논하자. 지민

2025년 10월 3일

애들아, 행사 준비 잘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한글날 홍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지민

영안 홍보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축한 뒤에 QR코드로 저장하고, 그 QR코드를 전단지 형태로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건 어때.

규대 오 괜찮을 듯.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사 참여 부스 위치’와 ‘행사 내용’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

지수 그러면 지도에서 행사 위치를 점으로 나타내고, 그 점 옆에 행사에 관한 필수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적어놓자

그러면, 유의 사항에는 뭘 적으면 좋을 거 같아? 지민

영안 일단, ‘한글 달고나’에는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우선 예약제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돼.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해.

규대 ‘한글 서예’는 자칫 옷이 더러워질까 봐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예용 걸옷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필요해.

지수 ‘한글 전시회’에는 훼손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적어야겠어.

자, 그러면 위 대화를 토대로 내가 QR코드를 만들어 볼게. 다들 고생했고, 행사 준비 열심히 하자. 지민

(나)

한글날 행사 소개

한글 달고나
한글 모양의 달고나로 한글을 완성해 보세요.
※ 사전 예약을 한 분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은 하단 링크 참조.

한글 서예
선비가 되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 보세요.
※ 서예 전용 걸옷을 대여해 드립니다.

한글 전시회
위대한 한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 자취를 찾아보세요.
※ 문헌이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 훼손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10월 9일
장소: 전남대학교
대상: 누구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달고나 행사 예약 링크

44. 복합 양식 텍스트로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그림이 한글날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 ② 약도 그림이 행사 참여 부스 위치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 ③ 전각 기호가 필수 정보와 유의 사항을 구분하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 ④ 행사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 활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⑤ 연결선이 약도 그림과 행사 활동에 대한 글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5.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글 달고나’에는 행사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적어놓자는 지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글로 된 달고나 만들기 활동이 주가 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두었다.
- ② ‘한글 달고나’에는 행사 시 수용 인원 한계가 있다는 영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참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사전 예약 신청 링크를 포스터에 적어두었다.
- ③ ‘한글 서예’에는 활동 시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규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예 전용 걸옷을 대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 ④ ‘한글 전시회’에는 한글 문헌 자료를 직접 체험토록 하자는 지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회에 사용할 문헌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 ⑤ ‘한글 전시회’에는 문헌 자료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성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의 사항에 문헌 훼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두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